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1-22)

〈그리스도의 세례〉, 호세 데 리베라

[제1독서]이사 42,1-4.6-7<또는 이사 40,1-5.9-11>

[화답송] 시편 29(28),1ㄱ과 2.3ㄱ과 4.3ㄴ과 9ㄴ-10
(© 11ㄴ)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사도 10,34-38 <또는 티토 2,11-14;3,4-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루카 3,15-16.21-22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 나는 믿나이다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159] 세상의 참된 행복
[179] 주의 사랑 전하리
- 파견성가: [82] 주 찬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때에 ¹⁵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¹⁶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²¹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²²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The people were filled with expectation,
and all were asking in their hearts
whether John might be the Christ.
John answered them all, saying,
“I am baptizing you with water,
but one mightier than I is coming.
I am not worthy to loosen the thongs of his sandals.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After all the people had been baptized
and Jesus also had been baptized and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주님 세례 축일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므로 주님 공현 대축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례력으로는 이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된다.

묵상

세례를 통하여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하느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례를 물로만 받고 성령으로는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선물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늑대에게 키워진 아이는 자신이 늑대라고 믿을 것입니다. 자신이 늑대라고 믿으면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세례는 이렇듯 내 정체성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 곧 ‘하느님’임을 확고하게 믿게 만드는 예식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으로 살고,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으로 삽니다. 사람의 자녀는 세상에 집착하며 살고,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는 오늘 제1독서에서처럼 또한 “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께 순종하시어, 오늘 제2독서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임을 믿으면 두 발로 걷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본성상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복음과 성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2)

-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

발렌시아 출신의 화가 호세 데 리베라 (Jose de Ribera, 1591-1652)는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카라바조에게 큰 영향을 받아, 1616년에 스페인 영이었던 나폴리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종교화를 주문받으며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제작했다. 리베라의 구도는 당대의 화가 중에서 가장 뛰어났으며,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양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가 말년에 그린 그림들은 주제와 구성에서 온화해졌고, 더욱 밝은 화면과 확고한 구도로 인간적인 감정이 넘쳐흐르는 화풍을 보여주었다. 그가 1643년경에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는 밝고 온화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넘쳐흐른다.



<그리스도의 세례>, 호세 데 리베라

걸치고 신성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리베라는 등장인물들을 화면의 경계까지 끌어당겼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세례에 동참하라고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림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리스도는 사도 바오로의 고백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피 2,6-8)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자신을 낮추시어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라고 눈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옷을 받아들고 있는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를 보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인가보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한히 투쟁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처럼 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만 살릴 것인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는 모든

복음사가들이 기록으로 남겼다. 그 내용이 마태오복음 3,13-17; 마르코복음 1,9-11; 루카복음 3,21-22에는 직접적으로 나왔고, 요한복음 1,19-28에는 간접적으로 나왔다. 예수님께서서는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리베라는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의 구성을 <주님 탄생 예고>의 구성을 따랐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여 주님 탄생을 예고하자 마리아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듯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조개껍질로 물을 떠서 세례를 베풀자, 예수님께서서는 무릎을 꿇어 자세를 낮추고 두 손을 모아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신다. 신성을 지닌 예수님께서서 인성을 지닌 세례자 요한에게 몸을 숙이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그를 상징하는 갈대로 만든 십자가를 들고, 낙타 털옷에 인성을 상징하는 붉은색 겹옷을 두르고 있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흰색 수건만 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십계명에 관한 교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6월 13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을 통해 십계명에 관한 교리 교육을 시작했다. “하느님의 열 가지 말씀들”에 담긴 뜻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지향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십계명 교리 교육〉중 주요 부분을 요약해 싣는다.

서론 : 완전한 삶에 대한 열망

십계명은 ‘명령’이 아닌 ‘말씀’,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주제로 교리 교육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탈출기 20장의 시작이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1절)라는 것을 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 계명들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전통은 십계명을 항상 “열 가지 말씀들(le dieci Parole)”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경 저자는 이 대목에서 “열 가지 말씀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왜 “십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명령과 말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령은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입니다. 반면, 말씀은 대화처럼 관계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당신 아드님께서는 육화되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말로 길러집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은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말하면 우리의 고독은 끝납니다. 계명들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열 가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대화는 진리의 전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봄이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는 진실이지만 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한다면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명들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기쁨과 말을 매개로 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달되는 구체적인 선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선은 사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안에서 서로를 주고받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142항 참조)

십계명은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이 여정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율법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녀의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율법을 앞서며, 율법에 의미를 부여한다.

열 가지 말씀들(십계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탈출 20,2). 이러한 시작은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십계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당신 자신과 해방에 대해 이러한 선포를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서야 시나이 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곧, 십계명은 하느님의 관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주시고, 그런 뒤에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선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소속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십계명 전체를 밝혀주며, 그리스도인 행동의 비밀을 드러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요한 15,9)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 관대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방문을 받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하느님께 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탈출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탈출 2,23-25).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열 가지 말씀들, 곧 십계명의 서두에 명시된 하느님의 해방시키시는 행동은 백성들의 그 신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되지 못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를 가엾게 여기소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조금 주십시오.”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기심과 죄와 노예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청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중요합니다. 이 외침은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고 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무한히 주신 당신께 기쁨으로 순명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축복받으소서. <<https://www.vaticannews.va>>

전례·교리

연중 시기

한 해의 삶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 한 해를 주기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맺기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한 해 동안 기념하고 경축한다. 이를 ‘전례주년’ 또는 ‘전례력’이라고 한다.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한 해의 흐름을 통하여 지정된 날들에 하느님이신 자기 신랑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는 것을 자기 임무라고 여긴다. 주간마다 주일이라고 불린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일 년에 한 번 주님의 복된 수난과 함께 이 부활 축제를 가장 장엄하게 지낸다. 한 해를 주기로 하여,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 강림 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 이렇게 구속의 신비들을 기억하며, 자기 주님의 풍요로운 힘과 공로가 모든 시기에 어떻게든 현존하도록 그 보고(寶庫)를 신자들에게 열어, 신자들이 거기에 다가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도록 한다”(전례 헌장 102항).

전례주년의 중심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다. 따라서 주님 부활 대축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 네 시기를 제외한 33주간 또는 34주간이 연중 시기이다. 대림 시기부터 시작되는 한 해의 전례주년에는 연중 시기가 두 번 있는데, 성탄 시기가 끝난 다음과 부활 시기가 끝난 뒤다. 연중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어떤 특정한 면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기억하며 경축한다. 이 시기의 미사 독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교회의 성장 모습을 주로 들려준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성탄 꽃 봉헌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대회

성탄 꽃 봉헌자 명단

전덕준(알렉시오), 김기수(요한), 어경식(도르데아), 강세원(바오로), 이상기, 조성수(라우렌시오), 한기근(안토니오), 박춘선(골롬바), 조남식(안젤로), 황희진(안젤로), 정승우(바오로), 이명자(벨라지아), 임지은(에밀리아), 김용일(아벨), 송상희(토마스아퀴나스), 노명숙(베로니카), 조명규(바오로), 한기남(데레사), 이정완(글라라), 이병국(베드로), 이양순(미카엘라), 안진이(제올지아), 임영재(안드레아), Hector, 서호심(마리아), 정우진(미카엘), 정세진(안드레아), 이소피아, 이순용(바오로), 강운주(안드레아), 문대규(그레고리), 김선대(마리아), 홍의훈(요셉), 금화열(바오로), 박신현(데레사), 조혜월(글로리아), 김은희(글라라), 박옥희(소화데레사), 김영희(아네스), 홍세실리아, 오승영(스테파노), 최해숙(수산나), 강수환, 유시명, 주광국, 조재형, 박용재, 박상웅, 권영수, 황원균, 김경숙, 강희성, 김우성(프란치스코), 곽금순(사비나), 이순례(사비나), 김남식(안드레아), 윤용병, 조경구(루카), 박용걸, 이기연(카타리나), 안용윤, 김용언, 김영애(아네스), 데레사, 최정길(요셉), 윤옥영(그라시아), 김옥산, 김기학, 유벨라뎃다, 김줄리, 류익희(아오스딩), 전수일(야고보), 정형순(요셉파나), 조영은(안토니오), 민금선(마리아), 차도미니, 정인숙(데레사), 이병일(다니엘), 장문환(베네딕도), 이영선(세군다), 심모니카, 김홍자(아네스), 박호천(바오로), 갈태연(마리아), 조현옥(안젤라), 유용래(다니엘), 은기권(루카), 조동훈(아브라함), 변윤구(시몬), 이창재(시몬), 백현대(아우스딩), 박혁주(마태오), 신충렬(세실리아), 허전(베네딕도), 곽도덕(도미니코), 김영희(아네스), 강대성(요셉), 조영인(요셉), 이수연(가브리엘라), 전은지(마셀), 박도원(다니엘), 박옥희(소화데레사), 한경옥(로즈메리), 이명자(젬마), 조순우(로사), 이정화(실비아), 김선미(카타리나), 박우현(야고보), 박이선(유스티나), 김형석(바오로), 김옥순(야가다), 정창조(루도비코), 권선안(아나시오), 강승평(요한), 서민영(세실리아), 김진석(마지아), 강승희(요한), 민일성(베드로), 이수산나, 천석기(바오로), 한귀병(토마스), 김석원(스테파노), 유제운(요셉), 지수성, 장세례자요한, 장정숙(베로니카), 이예식(글라라), 백영숙(마리아), 손범희(세례자요한), 김재은(안나), 정우석(필립), 김상애(수산나), 유호경(안토니오), 김명희(올리아나), 이정렬(마리아), 박찬현(야고보), 권강자(아네스), 원경숙(세실리아), 김요안나, 이수호(미카엘), 이계성(안드레아), 김남식(데비트), 정호정(소피아), 고복님(수산나), 노월승(소피아), 이헬렌, 율리아, 안상용(요한), 김문겸, 이인표(요한), 정선화(루시아), 오복미(도미질라), 권정미(안나), 양명암(안드레아), 최환용(바오로), 유지광, 김수현(엘리사벳), 한상준(프란치스코), 전지운(다이에나), 전홍수(미카엘), 김영덕(아우스딩), 강금생(안나), 김말순(루시아), 김크리스틴(엘리사벳), 김수자(세실리아), 박창호(토마스), 박해운(실비아), 전원길(베드로), 김운옥(마리아), 주홍식(도미니코)

Total : \$4,955.⁰⁰

THE BAPTISM of the LORD January 13, 2019

Gospel [LK 3:15-16, 21-22](#) (See page 2)

Jesus Begins His Mission



〈오 마리아 수녀의 주일복음그림 / 바오로딸 콘텐츠〉

Today we celebrate the baptism of Jesus.

After living with his mother for thirty years and working as an ordinary carpenter, it was time for Jesus to start His special work.

What was Jesus' special work? It was showing people the way to God and taking away their sins.

When you were baptized, God was getting you ready for a special job too. He was giving you grace so that you could grow closer to Him and bring other people closer to Him too.

How can you help bring others closer to God?

〈www.thekidsbulletin.com〉

ANNOUNCEMENT

1



- **Registration : Sundays, Jan 13-27** at Hasang bldg. lobby
- **Cost : \$125** (with your own ski equipment)
\$185 (rental fee included)
- **Contact : Mr. Augustine Rhee** (703) 627-0799

2

2019 Student Confirmation Class Registration

- **Registration Period :** Sundays, Jan. 13-Feb. 24
- **Where :** Sunday School Office (Hasang Building)
- **First Day of Class :** Wednesday, Feb. 27, 7:40pm-9:00pm, Hasang Bldg Room #110
- **Contact :** Mrs. Yunchong Boyle (703) 371-3589
spc15.re.admyc@gmail.com

3

No Sunday School on Jan. 20 in observance of **MLK Jr.'s Day**

Join us as you pilgrimage to the March for Life!

life is VERY good

EVENING OF PRAYER

(Including Confessions)

January 17, 2019
Fairfax, Virginia
7:30pm - 10:00pm
Doors open at 6:30pm

WHO Open to **6th-12th** graders

WHEN Thursday, January 17,
7:30pm-10pm

WHERE Eagle Bank Arena
at George Mason University

***Limited Spaces, First Come First 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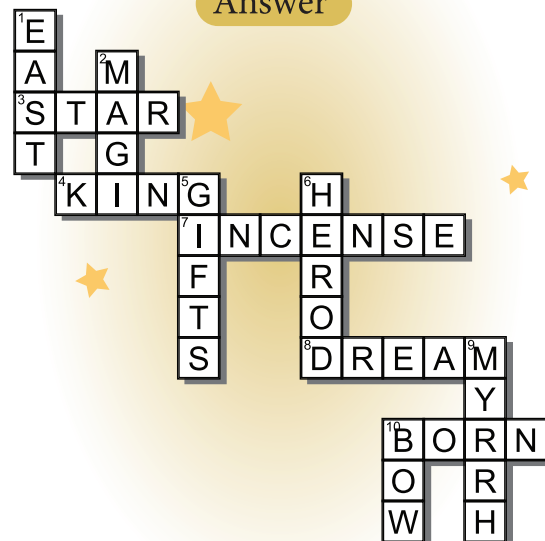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CCD 6th-8th grade : Mrs. Yunchong Boyle
(703) 371-3589

CYO 9th-12th grade : Mr. Augustine Rhee
(703) 627-0799

EPIPHANY CROSSWORD (Jan. 6, 2019)

Answer



1 단체장 회의

- 일시 : 1월 13일(일) 오전 11:30(B-3,4)

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월 13일(일) 오후 1시(B-1,2)

3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1월 13일(일) 오후 1시(A-3,4)

4 저금통 동전 분류 작업

- 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 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외국(한국 동전 포함) 동전은 받지 않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월 13일(일) 10시 미사 후(A-1,2)

5 사도원팀 회의

- 일시 : 1월 18일(금) 오후 8시(B-1,2)

6 K of C 모임

- 일시 : 1월 19일(토) 오후 7시(B-3,4)

7 하상회 모임

- 일시 : 1월 20일(일) 오전 11:30(B-3,4)

8 안나회 모임

- 일시 : 1월 20일(일) 오전 11:30(A-1,2,3,4)

9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월 20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10 교육부 세미나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 강사 :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 일시 : 1월 27일(일) 오전 11:30(친교실 A-1,2)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1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 세계 결혼 기념일을 맞아 결혼 25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은 부부들을 혼인 갱신식에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월 10일(일) 10시 미사 중,
미사 후 환영식(친교실 A-1,2)
- 신청 및 문의 : 김창호 요한 비안네 (703)830-5473

12 알링턴 교구 Life is VERY Good 이벤트

- 일정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7:30 - 10시
- 대상 : 6학년 - 8학년
- 장소 : Eagle Bank Arena
4500 Patriot Circle, Fairfax, VA 22030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3 2019년도 학생 견진 성사반 등록 신청 안내

- 대상 : 세례·성체성사(첫 영성체)를 받은 7학년 이상
- 접수 기간 : 2019년 1월 13일-2월 24일 (주일)
- 접수 장소 : 주일학교 교무실 (하상관)
- 개강 : 2월 27일(수), 오후 7:40, 하상관 110호

14 CYO 스키 트립

- 일시 : 2월 1일(금) - 2월 3일(일)
- 장소 : Seven Springs, PA
- 접수 : 1월 13일 - 27일(하상관 로비, 8시-10시 미사 전, 후)
- 등록비 : \$125(본인 장비 자참시), \$185(Rent 포함)
- 문의 :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5 2019 Work Camp

- 일정 : 2019년 6월 22일(토) - 6월 28일(금)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475
- 신청 : 1월 13일(일) - 1월 27일(일), 친교실
- 문의 :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6 성경 필사 일정표

- 2019년 성경 필사 주간 계획표가 주보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2019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



-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생명 수호 행진이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 까지 실시됩니다.
- 일정 : 1월 18일(금) 오전 11:30 점심식사 후 오후 12시에 성당에서 출발합니다. 따뜻한 복장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 인원 : 선착순 55명
- 참가 신청 : 1월 13일까지(친교실, 사무실)
- 문의 : 사무실 (703)968-3010

1월 14일(월), 17일(목), 19일(토), 21일(월), 24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1월 20일 주일학교 휴교 (MLK Jr.'s Day)

교황님의 1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젊은이
젊은이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주간 : 1마카 4-6, 로마 3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17일(목) 오후 5:00-6:00
1월 18일(금) 저녁 8:00-9:00
1월 20일(일) 아침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가톨릭 뉴스

- 특강 : 임 따라 한평생(2) - 이병호 빈첸시오 전 전주교구장
"사람은 누구나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위대함을
갖고 있다"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월 6일(주님 공현 대축일)

주일헌금 \$8,322.00
교무금 \$10,88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650.00
감사헌금 \$200.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헌금 ... \$5,612.00
2차헌금 \$0.00
합계 \$28,66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정영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소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제마),
이주원(7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가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수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복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호전)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월 13일(일)	주님 세례 축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오전 11:30, B-1,2), 25주년 자문위원 회의(오전 11:30, A-3,4), 저금통 동전 분류 작업(오전 11:30, A-1,2), 베드로회(오후 1시, A-3,4)
14일(월)	연중 제1주간	평일미사 없음
15일(화)	연중 제1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경 기도회(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6일(수)	연중 제1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17일(목)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평일미사 없음
18일(금)	연중 제1주간	March for Life(오후 12시),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19일(토)	연중 제1주간	평일미사 없음, 레지오 마리아(오전 9:40, 친교실), K of C(오후 7시, B-3,4)
1월 20일(일)	연중 제2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오전 11:30, 하상관 #4,5)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이크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마이크엘) 703-881-115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영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